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월 20일(주일) 제1230호



##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 CGNTV 드라마 '고고송' 1월 25~26일 방영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호평

CGNTV 드라마 '고고송'이 오는 1월 25일과 26일 오후 9시 10분(재방송 2월 3일 밤 11시 2부작 연속 방영) 방영된다. 드라마 고고송 제작진은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CGNTV의 첫 번째 드라마 '다시 봄' 이상의 감동과 재미를 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드라마 고고송은 결혼을 앞둔 공선화(강원형)와 김원형(김원형) 커플,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부인과 6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는 남편, 부모의 반대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자 결혼을 감행하는 다운증후군 커플 등이 노래하는 사랑 이야기다. 배우 윤은혜(공선화 역)와 지일주

(강원형 역)가 주인공을 맡았다. 극본은 작가 고은님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바탕으로 썼다.

배우 윤은혜는 "드라마 고고송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상처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축축이 적셔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우 지일주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다"면서 "특히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이 드라마를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1월 10일과 11일에 방영된 CGNTV 다

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도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선교를 소개하면서 이 시대 선교의 가능성과 새로운 선교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관련기사 8-9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18-2019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어제(1월 19일)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와 29개 해외비전교회, 기도처, 선교지 등지에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비둘기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진리의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비둘기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진리의 성령

####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종료 ...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간구"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 부천 차세대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스티커 통장'을 만들어서 차세대들의 새벽기도회 참석을 독려했다. 정흥선, 이미희 성도와 자녀 4남매(은지 10세, 지운 9세, 은서 7세, 은우 3세)는 온 가족이

40일 새벽기도회를 완주했다. 2007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40일 새벽기도회를 완주한 최지현 집사(SB릿지공동체)는 "내게 임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노정숙 성도(서초C공

동체)는 "40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벽기도회의 은혜는 계속 이어진다. 서빙고와 양재 새벽기도회는 1부 5시 20분, 2부 6시 30분에 진행된다. 부천, 수원, 남양주, 평택, 인천, 대전(토 6시), 양지 5시 20분, 강동은 6시 20분에 시작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 된다

## 보석보다 반짝이는 양지 온누리교회 ‘희락다락방’

‘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작은 모임이다. 이 작은 모임의 존재 이유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동누리공동체 희락다락방 4순과 2순은 순모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지체를 위하여 밤낮없이 기도하고, 순원들의 갈급함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순이다. 보석보다 반짝이는 희락다락방 4순과 2순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희락다락방 4순원들과 온맘중창단 단원들이 김종렬 순장을 위해 열었던 찬양음악회.

“우리 순은 한 가족입니다.”

지난해 11월 남편 김종렬 순장(양지 온누리교회)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이혜숙 권사(양지 온누리교회)의 고백이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권사가 입술이 닳도록 순원들을 칭찬하는 것일까? 사연은 이렇다. 이 권사는 양지 온누리교회 동누리공동체 희락다락방 4순원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순원을 덕분에 남편 잃은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사랑과 섬김이 이어지고 있다. 희락다락방 4순원들과 양지 온누리교회 여성중창단 ‘온맘중창단’의 단원들은 매일 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권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다. 남편 보내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권사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가 없다.

“저희 집이 외진 곳에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 저를 위해서 순원들과 중창단 단원들이 매일 찾아오셔서 함께 잠을 자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순원들과 중창단 단원들이 함께 있어줘서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 순원들이 만든 기적 그리고 변화

이혜숙 권사의 남편 김종렬 순장은 2017년 7월 췌장암 선고를 받았다. 수술 받고 완치될 줄 알았던 췌장암이 2018년 1월 재발했다. 그때 이 권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

다.

“2017년 7월에 췌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너무 슬퍼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희락다락방 4순원들은 투병 중인 김종렬 순장의 집을 매일 찾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다. 모든 순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김종렬 순장의 쾌유를 소망했다. 그런데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다.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더 이상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김종렬 순장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희락다락방 4순원들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김종렬 순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김종렬 순장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찬양을 쉬지 않고 불렀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는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여성중창단 ‘온맘중창단’은 매주 김종렬 순장을 찾아가 찬양을 불렀다. 김종렬 순장을 위한 찬양음악회도 준비했다. 그런데 찬양음악회가 열리기 며칠 전 김종렬 순장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외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희락다락방 4순원들과 온맘중창단 단원들이 김종렬 순장이 찬양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릴레이 급식기도를 했다.

찬양음악회 당일, 김종렬 순장의 건강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됐다. 그렇다고 해도 김종렬 순장이 찬양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온맘중창단 팀장 임경숙 집사

(양지 온누리교회)가 당시를 회상하며 울컥했다.

“강마른 김종렬 순장님께서 링거를 꽂고 담요와 두꺼운 옷으로 온몸을 감싼 채 휠체어를 타고 찬양음악회에 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였어요. 그래도 찬양음악회 내내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희락다락방 4순원들은 김종렬 순장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준 것이 아니다. 삶의 필요도 부족함 없이 채워줬다. 김종렬 순장 집의 무너진 울타리를 수리해주고, 장마철에는 정화조도 손보쳤다. 김종렬 순장이 아무런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혜숙 권사는 순원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다.

“남편이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순원들 덕분입니다.”

김종렬 순장이 소천 한 뒤에도 희락다락방 4순원들의 사랑과 섬김이 이어졌다. 순원들은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정말 든든한 가족이 되어줬다.

희락다락방 4순원들의 사랑과 섬김이 김종렬 순장의 자녀들을 변화시켰다. 교회에 잘 다니지 않던 자녀들이 순원들의 사랑과 섬김에 큰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았는데 희락다락방 4순원들의 사랑과 섬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순원들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또 있었다. 희락다락방 4순원들은 김종렬 순장을 섬기면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했다. 희락다락방 4순에는 주로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순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고 딱딱했던 게 사실이다. 속마음을 편하게 나누지도 못했다. 바로 그 순이 김종렬 순장을 섬기면서 하나 되고 속마음처럼 부드러워졌다. 광종근 성도(양지 온누리교회)는 이 모든 변화가 김종렬 순장을 섬기면서부터 나타났다고 고백했다.

“잘 알다시피 군인은 계급을 중시하는데 우리 순에는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순모임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순모임 분위기가 다소 딱딱했던 게 사실입니다. 순원들이 속마음을 잘 나누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원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김종렬 순장님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되고 속마음을 나눠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김정연 집사(양지 온누리교회)도 변화된 순

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보통 순장들이 순원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락다락방 4순은 완전히 달라요. 순장이나 순원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서로를 잘 섬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 희락다락방 2순이 보여준 진정한 사랑

희락다락방 2순도 4순 못지않다. 고통을 겪고 있는 순원에게 그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되어줬다. 희락다락방 2순 임덕수 성도는 해면상 혈관종을 앓고 있다. 해면상 혈관종은 뇌출혈이 동반되는 뇌종양이다. 임덕수 성도의 아내 나정희 성도(양지 온누리교회)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끔찍하기만 하다.

“재작년 12월이었어요. 주일에 남편이랑 교회를 가는데 몸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면상 혈관종 진단을 받았어요.”

종양이 점점 커져서 뇌의 운동신경을 눌렀고 심한 마비 증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황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아내 나정희 성도는 놀란 가슴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신익호 순장(양지 온누리교회)이 떠올랐다. 신 순장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신 순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걱정 말라”며 수락했다. 그렇게 약 20여 일 동안 임덕수, 나정희 성도의 두 아들을 살뜰히 보살펴줬다. 신 순장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아이들은 부모 없이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생활했다. 나정희 성도도 아무 걱정 없이 남편 병간호에 집중할 수 있었다.

희락다락방 2순원들은 임덕수 성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밤낮없이 기도했다. 신익호 순장과 순원들의 섬김과 기도 덕분에 임덕수 성도는 기적처럼 쾌유할 수 있었다. 건강해진 임덕수 성도가 신익호 순장과 순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순원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희락다락방장 박광재 집사(양지 온누리교회)는 2순과 4순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순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순원들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순을 하나 되게 만들고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딛으라

마 14:22~33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 자체가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는지에 따라서 진짜 믿음인지가 증명됩니다. 사탄의 공격 같은 악의 공격도 우리의 믿음을 진보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더욱 굳세고 강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훈련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극적이고 위대한 훈련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때가 자정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6시 사이에 제자들이 거센 물결에 휩쓸리며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수 시간 동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체험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놀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며 사건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자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28절).

지금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떠는 상황입니다. 배가 앞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모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험심과 단순함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엉뚱해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때로는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배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 다. 베드로는 단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심만을 바라보며 “만일 주님이시면 명하여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치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은밀한 사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배가 너무 좋아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 위험하지만 배 안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엉뚱해 보이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찌면 웃으셨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한번 해본 말인데 진짜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없이 “나도 예수님처럼 물위를 걷고야 말겠어”라고 결심하고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결심,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라고 하신 분이 있느냐입니다. 오라고 하신 분의 음성과 말씀 없이 가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신 분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베드로와 믿음의 발걸음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배 밖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 다. 믿음이 요구되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물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갈릴리호수는 그가 늘 물고기를 잡던 곳이었습니 다. 물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몰라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에게 물속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택하라고 했다면 수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경험했던 상식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돌아서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발을 홍해에 담가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길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닷물이 확실하게 갈라진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온 땅의 주되시는 여호와와 함께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수 3:13).

여러분, 발을 담가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제 요단 강의 물이 끊기고 그 물 벽이 서게 될 때 너희들은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병력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살 행위와 같은,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믿음,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기

요나단의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모세의 발걸음, 베드로의 발걸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의 한 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내 믿음은 부족해. 내 믿음은 더 많아져야 해. 내 믿음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3편에 계속〉

## 신년기획

## 1. 크리스천과 돈

## 2. 크리스천의 유산상속

## “땅에 남기는 것보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라”

쉽게 얻은 재산은 결코 행복하게 끝맺지 못한다  
부의 축적, 이전, 상속을 성경적 시각으로 바꾸자!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

흔히 유산상속과 경영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재벌가(家)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국내 유수의 재벌가에서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피 튀기는 분쟁을 벌이는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재벌닷컴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40대 재벌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7곳에서 혈족 간 분쟁이 벌어졌다.

문제는 유산상속 분쟁이 재벌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유산을 한 톨이라도 더 받기 위해,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자매들이 물고 뜯는 불쌍스러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 정현주 joo@onnuri.org

삼성, 롯데, 금호아시아나, 현대차, 현대중공업, 효성, 두산, CJ, 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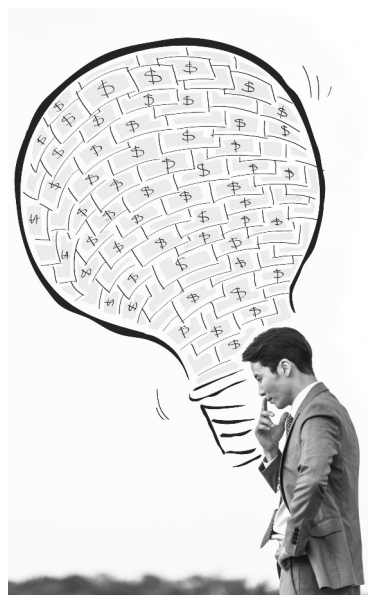
이들 그룹은 혈족 간 유산상속 분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재벌가들이다. 왕자의 난, 시숙의 난, 시동생의 난 등을 겪으며 분쟁을 앓았고, 이 과정에서 막말과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다. 진흙탕 싸움 중에 가문에서 제명된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남기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대표적인 기업이 명품 브랜드로 잘 알려진 구찌이다. 탁월한 디자인과 장인정신으로 승승장구하던 구찌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유산상속 분쟁이었다. 창립자(구찌오 구찌) 사망 이후 자손들이 지분상속을 두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다. 결국 장남 마우리치오 구찌가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방탕한 경영을 하다 파산 직전 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기고 말았다. 그는 아내가 고용한 칼러에 의해 정부 살해당했다. 지금은 구찌가 옛 명성을 되찾았지만 창업자 구찌오 가문의 흔적은 브랜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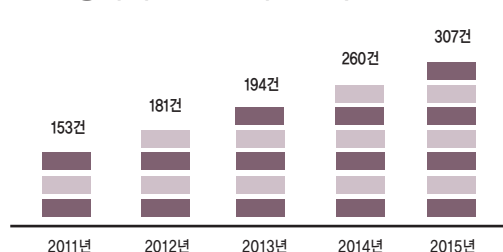
유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크리스천을 포함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산상속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 분할사건이 2011년 153건에서 2012년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2015년 3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송(非訟,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절차로 처리)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도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3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5년 만에 무려 두 배 이상 늘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법원(2015년) 자료에 따르면 상속소송(유류분 반환 청구)이 2005년 158건, 2010년 452건, 2014년 811건으로 10년 새 다섯 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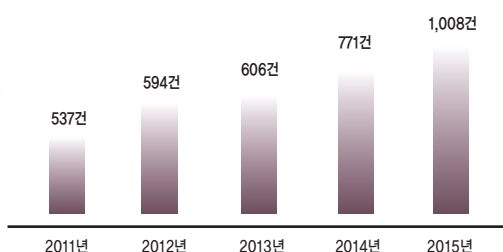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20~30대 미혼남녀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서울가정법원)



비송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대법원)



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5년)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부모의 재혼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재산상속 문제로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32%)’가 가장 많았다. 유산상속 문제가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가정의 형성까지 막고 있는 꼴이다. 이밖에도 80대 노모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병원장 아들을 상대로 1인 시위하는 백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돈 앞에서 아니, 유산상속 앞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없다.

#### 성경이 말하는 유산상속

성경은 유산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유산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온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소유 재산 전부를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창 25:5-6).

민수기 27장 8~11절에도 재산상속과 관련된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산상속에 있어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마저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물려받도록 하셨다. 이는 오늘날 재산상속제도 순위 즉, 직계비속(혈연관계의 자녀와 손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방계혈족(형제자매)과 같다. 잠언에는 “선한 사람은 유산을 그 후손들을 위해 남긴다”고 기록되어 있다(잠 13:22).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 유산상속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탕자의 비유도 그 사례이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재산)을 달라고 했다(눅 15:11~32). 지금의 사전상속 즉, 증여를 받은 셈이다. 마태복음 21장 33~41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가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는 비유도 재산상속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에 나오는 유산상속 사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상속제도 자체를 인정하셨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험빛과 굶주린 이웃에게 나눠줄 것을 강조하셨다는 점이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그 사례이다(마 19:16~30). 그 청년은 굉장한 부자였다. 당시 이 청년이 무엇으로 굉장한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하지도, 간음하지도, 도둑질하지도, 거짓증

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정도로 선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다.

또 예수님은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마 6:19~21). “먼저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눅 6:38)고 하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고 하셨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버릴 이 땅의 재물을 불우한 이웃에게 사용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며,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다.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노력 없이 물려받은 부는 오래가지 힘들다는 뜻이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 은이 가치가 없었을 정도로(왕상 10:21) 솔로몬의 부는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다(왕상 10:23).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맺지 못한다”(잠 20:21).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산상속이 자녀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 28:2-6).

월급쟁이 자녀에게 갑자기 수억 많게는 수십억 유산이 상속된다면 과연 그 자녀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부모의 재산을 받기 위해 감 떨어지지만 기다리거나 엄청난 유산만 믿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그 유산이 바로 신앙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땅에 남기는 것보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라”(마 6:19~21).

## 기고

## 유산(遺産) 바르게 물려주기



박승식 집사  
(사회선교부 이웃사랑  
팀장, 세무사)

최근 상속과 관련 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상속이란 특정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나 권리가 그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상속권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대부분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승계되는 재산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으로 당연시되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자녀들 간 불공평한 상속으로 인한 다툼이다. 또한 자녀들 간 상속 재산에 대한 생각 차이로 인한 것이다. 상속에 대한 권리는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집행되지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유언에 의한 상속 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변천사

상속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린다. 왕가의 상속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산되고, 국가 간 국경선이 그어지기도 한다.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의 문제는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제도는 부계상속이고, 장자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장자상속이 일반적이다. 왕위 승계도 상속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장자상속이 일반적이지만, 유목민족의 경우 형제상속 또는 말자(막내아들) 상속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반면 자녀들에게 균등상속 혹은 공동상속 형태로 승계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변천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전, 조선시대 전기까지도 자녀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다. 아들딸 구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상속권이 부여되고 있었다. 출가한 딸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했다. 여성이 출가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서양이나 일본과는 달리 본인(친정)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상속제도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혼란시기를 겪으면서 사림(士林)이 정치 일선에 등장하고, 관심이 성리학에 집중되면서 장자상속권이 우선시되고, 출가한 딸의 상속권이 박탈되었다.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등 상속제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전통이 최근까지도 당연시되고 유지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장자상속(제사권 승계자)이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다른 자녀에게 일



**“기독교인들은 상속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노력은 자제하고, 소외계층 배려하는 차원의 부의 이전에 관심 가져야 한다.”**

부가 상속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다 1990년대 초 남녀, 제사권 승계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분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되었다. 새로이 균등상속의 제도가 회복되었다. 출가한 딸도 상속권을 갖게 되었으며, 유언에 의한 불공평한 상속을 일부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다. 상속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50%까지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 상속세 과세의 논거는 모든 사람의 권리는 평등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현재 인간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자유와 평등이다. 또한 경쟁의 원리를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자유로운 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습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중한 것처럼, 공평한 경쟁의 환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가치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력에 의하지 않고 습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어) 다른 구성원들(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의 균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재벌들을 필두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탈세를 일삼으며 부의 대물림에만 집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빈부 격차, 양극화 문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배분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자본소득이나 부의 이전과 같은 과세대상에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올바른 유산상속이란 무엇인가?

정병일 박사(EPS청지기 재정교실 대표)는 한 칼럼에서 “사회적으로는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만 관심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 못지않게 올바르게 나누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할 때 가장 잘 관리할 자녀에게 올바르게 분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평하게 지혜 없이 배분한 부유함은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중독, 게으름, 부도덕성을 조장하므로 중국에는 재물로 인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헨리포드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남기는 것과 하늘 나라에 드리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양식으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을 절제하여 영원한 나라에 저축하는 섬김과 드림, 나눔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였다.

상속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성경에서 찾아 본다면 희년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획득해 12부족에게 배분하면서 50년마다 땅을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도록 하였다. 이는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소외된 계층과 경쟁에서 뒤처진 자에게 생존의 기반이 되는 땅을 50년마다(당시에는 50년을 경제적 활동기간으로 봄) 재분배하도록 하여 당대의 부가 다음세대로 상속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일생에 한번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출발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여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현대와 같은 자본의 이득에 의한 부의 축적을 원하지 않으셨다.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근로를 통한 부의 축적을 장려하였다. 이것은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고 선교를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사유재산의 인정 사실만을 강조하여 자본축적을 통한 재산 축적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쑥 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성경적 최선의 사회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외된 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수준, 최소한의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평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외계층에게 다가가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상속에 대한 생각을 일반인과는 다르게 가져야 한다.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노력은 자제하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의 부의 이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자선자원재단(CAF)이 발표한 ‘2017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에서 21위로, 기부행위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한 기부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부문화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 2,500개의 도서관을 설립한 앤드류 카네기, 록펠러 의학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자선 사업의 대명사로 떠오른 록펠러, 죽기 전까지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빌 게이츠, 콜라와 감자칩을 먹으며 약 74조원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워렌 버핏, 5천만 달러(약 600억 원)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500만 달러씩 기부해서 2만5천여 개 학교의 2백만 명의 학생들을 후원해오고 있는 아저 프랭지(인도의 빌게이츠) 등과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실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아령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의 유산이라면 땅이나 돈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 묻어두었던 생각이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유언 같은 책을 완성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정병일 박사는 “부모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삶의 모본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유산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정에배는 영원한 관점을 상속하는 실천도장이며, 하나님이 주신 되심과 우리는 청지기임을 자각하는 관계 회복의 장”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축적과 부의 이전 및 상속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 시각으로 다시 봐야 할 것이다.

##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 김포M센터 리홍 형제와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

김포M센터 캄보디아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리홍 형제와 친구들은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진리의 산증인이다. 한국 선교팀이 개최한 여름 성경캠프, 이웃들에게 대접한 따뜻한 밥 한 끼, 버스에서 만난 이주민에게 건넨 인사 한마디가 예수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리홍 형제와 친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리홍 형제는 믿음도 좋고 능력도 좋은 청년이다. 캄보디아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탁월한 청년이다. 믿음도 좋아서 공동체에서 ‘전도박사’로 통한다. 이쯤 되면 자랑도 할 법한데 리홍 형제는 한사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다. 겸손도 으뜸이다.

#### 우연히 간 성경캠프에서

리홍 형제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났다. 캄보디아는 국민 90% 이상이 불교신자인 이른바 불교의 왕국이다.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국가이다. 리홍 형제도 어린 시절에는 불교신자였다.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도시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크리스천들을 볼 수 있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 리홍 형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 예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선교팀이 리홍 형제가 사는 마을에 찾아왔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캠프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리홍 형제도 있었다.

“거의 20년 전 일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한국 선교팀이 성경캠프를 열었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서 캠프가 끝날 때까지 졸졸 따라 다녔어요. 모든 게 새롭고 재미있었거든요. 그때 난생 처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이듬해 한국 선교팀이 또 다시 리홍 형제가 사는 마을에 찾아왔다. 그때 열린 성경캠프에서 리홍 형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현지 교회에 출석했다. 현지인 목회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웃들을 섬길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화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리홍 형제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진학을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국 사람들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다.

“프놈펜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



리홍 형제(왼쪽 가운데)와 김포M센터 식구들.

요. 그런데 마침 한국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리홍 형제는 프놈펜대학 컴퓨터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 시절 배운 학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다.

“매일 저녁 9시 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양육 훈련을 받았어요. 4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부어 주시는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프놈펜대학을 졸업한 리홍 형제는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한화 3천만 원 모으기, 한국어 배우기, 기술 배우기,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교회로 안내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 김포M센터는 천국이 따로 없었다

아심찬 포부를 품고 한국에 왔지만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 원대한 꿈에 비해 그 시작이 심히 미약했다.

“대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은 일대로 어렵고, 말은 안 통해서 정말 우울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는 것도 힘들었고요.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 일면식도 없는 친구가 경기도 김포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적으로 김포M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리홍 형제에게 김포M센터는 천국이 따로 없었다. 매주 주일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봉사자들이 따뜻한 밥까지 차려줬다. 한국어도 알려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리홍 형제는 김포M센터와 봉사자들이 너무 좋아서 김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김포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손에 익지 않아 1년 넘게 고생했다. 같은 공장에 다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서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일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 잘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거짓말처럼 실력이 늘었다. 지금은 그 가구 공장에서 알아주는 일꾼이 되었다. 리홍 형제가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 공장에서는 캄보디아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고용할 정도다. 리홍 형제는 그 공장에 오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꼭 김포M센터를 안내한다. 리홍 형제는 지난 4년 동안 10명이 넘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전도했다. 기자와 인터뷰 한 날에도 리홍 형제는 한국에 온지 3일 된 캄보디아 형제 2명을 김포M센터로 안내했다.

#### 리홍 형제와 친구들

리홍 형제의 영향을 받은 김포M센터 캄보디아공동체 친구들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리홍 형제의 단짝 인 형제는 ‘노방 전도의 달인’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M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길이나 버스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면 꼭 김포M센터를 소개한다. 소티어 형제도 김포M센터를 찾아온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소티어 형제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전도실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주민 근로자들은 비자 때문에 4년 10개월마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리홍 형제는 올해 3월 출국 예정이다. 한국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나 다시 한국에 올 생각은 없다. 김포M센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다.

“계획보다 돈을 많이 모았고, 한국어 공부도 했고,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섬겼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사업을 하고 싶어요. 밥 못 먹는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섬기는 크리스천 기업을 세우고 싶어요.”

김포M센터에는 캄보디아어예배와 차세대예배가 있다. 캄보디아어예배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 50여 명이 출석한다. 차세대예배에는 방글라데시 줌머족 아이들, 한국 아이들 20여 명이 출석한다. 김포M센터에서는 예배, 한국어 학교, 식사 봉사, 재능기부(음악, 교육), 헬터 등을 섬겨 줄 봉사자를 찾고 있다.

문의: 010-2896-5705

## Holy Spirit

##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눈빛이 슬픈 아이들을 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다문화 어린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이가 있다. 심용기, 정은주 집사 부부(한강공동체)다. 그들은 매주 주일 포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공과공부를 한다. 가정방문도 한다. 다문화 아이들에게 옷을 사다가 입히기도 하고, 가끔 용돈도 쥐어준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다문화 아이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있다. 사랑이 고픈 아이들이 눈에 밝혀 매주 포천에 가는 일을 거르지 않고 있는 심용기, 정은주 집사 부부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예수 믿고 봉사한다는 건 영광입니다”

## 포천 하랑예배를 섬기는 심용기, 정은주 집사 부부

포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하랑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이다. 하랑예배는 포천 지역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어우러져 예배드리고 있다.

하랑예배에는 심용기, 정은주 집사와 임광순 장로(다문화사역팀), 요셉공동체(청년부) 청년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한 달에 두 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공과공부를 돕고 있다. 임광순 장로는 포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이들의 딱한 사연을 온누리교회에 처음 알린 인물이다. 임 장로는 다문화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드린 첫 예배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도망 다니고, 장난치느라 좀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받아서 그런지 냄새가 났고, 옷도 더러웠어요. 그때 심 집사님 부부가 저와 함께 이곳에 왔다가 다문화 아이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밥해 먹이고, 옷 사다 입히고, 용돈도 주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심 집사님 부부가 다문화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 둘 셋만 더 있어도 이곳에 교회를 만들겠는데 말이지요.”

임광순 장로는 심 집사 부부를 향한 칭찬과 감사를 계속 이어갔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던 심 집사 부부가 겸손하게 한마디 했다.

“제가 아이들을 섬기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기쁜 것뿐입니다.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도 행복하고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희의 믿음이 성숙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나도 쓰신다”

심용기 집사는 6살 때부터 엄마를 따라 절에 다녔을 정도로 골수 불교신자였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다 15년 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당시 심용기 집사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정은주 집사가 답답한 마음에 교회에 나가게 됐고 남편을 이끌었다.



▲ 심용기, 정은주 집사 부부.  
◀ 포천 하랑예배 다문화 어린이들과 봉사자들.

“사실 교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가 준거였어요. 저와 교회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 낮은 교회 분위기가 부담스럽고, 설교 말씀도 도통 와 닿지 않더라고요. ‘내가 해도 그것보다 잘하겠단’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아내 정은주 집사가 성가대, 교도소사역 등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동안 남편 심용기 집사는 조용히 예배만 드렸다.

“저는 안개 성도가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을 안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아내가 함께 사역하자고 권유를 참 많이 했어요.”

아내의 간절함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재작년 마리아행전에서 우연히 포천 다문화 어린이들의 사연을 접하고 마음이 동했다.

“포천 다문화 어린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람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이주민과 무슬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곧바로 임 장로님께 전화 드려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리가 먼 것 정도는 상관없었어요.”

바로 그 다음 주 포천 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우리나라 70~80년대 시골 아이들 같았어요.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궁핍하고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을 돕는 것이 내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

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심 집사에게 아내 정은주 집사는 너무나도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아내는 제가 사역을 제대로 섬기는지 감시할 겸 이곳을 따라와다가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아내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니 같이 섬세하고 인자한 손길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꼭 필요했는데 아내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고 있어요.”

심 집사는 요셉공동체 청년들에게 감사하기도 했다.

“매월 둘째, 넷째 주일에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그 중, 오세운 형제(요셉공동체)는 매주 같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공과공부도 도와주고 있어요. 청년들이라 그런지 나이 많은 저보다 아이들과 금방 친해지고, 아이들도 잘 따르더라고요. 청년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貢)을 다른 이들에게 돌렸지만 심 집사가 포천 하랑예배 섬김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쁘고, 보람된 사역이지만 매주 주말마다 포천까지 가는 게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고 제 교만을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나도 쓰신다는 사실어요.”

## 그 영광의 자리에...

포천 하랑예배에 나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세 번이나 이혼을 반복한 아이,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아이, 아이만 한국에 두고 어머니가 본국으로 가버린 경우, 탈북자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이, 조손 가정 아이들까지... 경제적 혜택은 고사하고 부모의 사랑과 인정조차 못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 어떤 아이는 감정조절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폐쇄됐던 아이들의 마음이 하랑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심 집사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아이들이 꼭꼭 닫았던 마음을 열고 있다. 4~5명 나오면 고작이던 하랑예배에 지금은 15~2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아이들의 변화는 부모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교회를 떠났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에 나오고 있다. 지금 하랑예배에 성령의 비림이 불고 있다.

“교회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위에 봉사할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보내주셨다’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처럼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 230만 명이 우리 주위에 왔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소외 받고 상처 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할 약은 복음 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믿음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봉사한다는 건 커다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천 하랑예배 봉사자 모집  
문의: 정은주 집사 010-5224-0540

##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사랑’

CGNTV 드라마 ‘고고송’ 25~26일 밤 9시 10분

‘사랑’ 만큼 고귀한 단어가 또 있을까?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랑의 의미가 조금은 희석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많이 사랑할수록 약자가 되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 남들에게 바보소리를 듣는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사랑이 최고라고 믿고 있다. CGNTV가 이러한 세태를 꼬집는 드라마를 제작했다. CGNTV 드라마 ‘고고송’은 파혼 위기에 처한 사회복지사 공선화(윤은혜)와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 아름다운 드라마가 1월 25~26일 밤 9시 10분 CGNTV에서 방영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드라마 ‘고고송’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노래하고 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CGNTV 드라마 고고송에는 결혼을 앞둔 주인공 공선화와 강원형 커플, 차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부인에게 6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는 남편, 부모를 비롯한 주변인들 모두의 반대를 무릅 쓰고 하루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결혼을 강행하는 다운증후군 커플 등이 출연한다. 배우 윤은혜, 지일주, 윤유선, 성기윤, 임동진, 문숙, 강민휘, 백지윤, 장광 등이 열연했다. 각본은 대종상과 청룡상 등 저명한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휩쓸었던 고은님 작가가 썼다. 고 작가는 2011년 채널A에서 방영된 드라마 ‘천상의 화원 고평배령’ 이후 8년 만에 드라마 ‘고고송’으로 복귀한다. 감성 짙은 드라마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고 작가가 드라마 고고송에서 보여줄 진실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화자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연출은 CGNTV 흥현정 PD가 맡았다. 지난 2017년 CGNTV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을 연출해 유럽기독교영화제(CEVMA) 고예산 드라마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는 실력과 연출자다.

### 사랑받는 것조차 왜 그리 힘든 걸까?

CGNTV 드라마 고고송에 출연하는 인물들이 그려낸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된다.

드라마 고고송의 주인공은 사회복지사 공선화다. 이뚱처럼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다.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직장 동료들과 복지관을 방문하는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파혼 위기에 처한 것. 공선화는 뜻밖의 육하는 성질과 집을 나간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애정결핍이 있는데 그것이 결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괜히 엄한 사람 상처 주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이 대사는 공선화가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애색하기 만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공선화는 받는 사랑조차 힘들어서 관계를 포기하려는 사람이다.

공선화의 남자친구 강원형은 경상도 출신의 퓨전한식당 셰프다. 일터에서는 굵은 팔뚝으로 위를 돌리면서 불쇼까지 선보이는 ‘마초남’이지만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배식봉사를 할 때면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남자로 변신한다. 복지관에 봉사하러 갔다가 공선화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준비까지 이르게 됐다. 그런데 사랑을 주고 또 줘도 사랑 받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공선화의 모습에 지쳐 신혼집에 이삿짐 나르다 이별을 결심한다.

받는 사랑조차 힘겨워하는 공선화의 모습은 그녀의 아버지 공철수를 꼭 닮았다. 공선화의 부친 공철수는 철없는 예술가다. 음악 한다면서 집 나간 지 3년 만에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그런 그가 딸이 파혼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린다.

사랑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받는 사랑조차 불편한 공선화와 공철수와 정반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랑을 주고 또 주는 사람이 등장한다. 공선화의 어머니 장미숙이다.

“그래도 다 됐고... 또 알고”

이 대사만 보면 장미숙은 “자기 팔자 자기가 쏜다”는 요즘 유행어와 딱 맞는 사람이다. 이기적인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의 속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눈을 질끈 감고 싶을 정도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얼굴에는 고생한 티가 하나도 없다. 공선화의 어머니 장미숙은 남편 없이 홀로 선화를 키운 날이 많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 ‘동화 작가’라는 꿈을 찾으며 살았다.

### 사람 그리고 사랑

드라마 고고송에는 눈가를 축축하게 적시는 커플이 등장한다. 결혼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도망치려는 공선화 커플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커플이다. 그 주인공은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 모두가 만류하는데도 열렬히 사랑하면서 결혼을 강행하는 최해원과 이장수 커플이다.

이장수는 다운증후군 바리스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성격이 워낙 밝고 유머러스

해서 ‘유쾌한 장수씨’라고 불린다. 배우를 꿈꾸고 있지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잠시 미루고 아내가 꿈을 이루도록 돕는 멋진 남자다.

최해원은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고 볼링선수가 꿈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인물이다. 자존감도 높다. 그 덕분인지 잘생기고 똑똑하고, 춤도 잘 추는 신랑 될 사람을 만났다.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결혼을 결심했다.

최해원의 부모는 둘의 결혼을 결사반대한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장애인들이 수명이 짧고, 자녀에게 다운증후군이 유전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엄마 아빠 닮는 게 뭐가 걱정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는 딸 해원의 호소에 결국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게 된다.

복지관 프로그램 ‘오페라’의 회원 장태구 할아버지와 아내 유순녀 할머니의 사랑도 감동적이다. 장태구 할아버지는 성격이 과파하기로 유명하다. 아내 유순녀 할머니가 6년째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얼굴 한번 내민 적이 없는 못된 남편이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 오페라에서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간다. 유순녀 할머니는 차매 환자다. 17살에 시집가던 날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다. 유순녀 할머니의 기억속의 태구는 젊고 멋진 남자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남편의 이름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잊지 않았다.

고은님 작가는 사랑을 낳는 사랑의 노래가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말했다.

“여주인공 ‘공선화’는 누구보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선화는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사소하지만 용기 있는 사랑의 액션들이 자주 사랑을 낳고 낳으며 점점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 CGNTV 채널안내

케이블 : D' LIVE 304번, CJ헬로 322번, gcs 푸른방송 ch.159번, 현대HCN ch.550번

IPTV : KT Olleh tv ch.237번, SK B tv 302번, LG U+ tv 271번



▲ 드라마 ‘고고송’ 출연진들과 제작진.



스포츠 선교사 힐만 감독(왼쪽), 커쇼(가운데), 이영표 집사(오른쪽).

##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 선교단체 ‘FCA’ 조명 및 스포츠 매개 선교 현장 소개

CGNTV가 야심차게 선보인 화제의 다큐멘터리가 있다. 한국 교계에 다양한 선교 방법과 가능성, 21세기 새로운 선교방향을 제시한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월 10일과 11일 방영했는데 시청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 선발투수 커쇼(LA 다저스)와 한국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힐만 전 감독 등이 소속된 선교단체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를 조명했다. 한국, 일본, 태국, 라오스, 남아공 등지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선교 현장도 소개했다.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http://www.cgntv.net))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사명이다. 그 사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일터, 직장, 가정, 교회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곧 선교이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CGNTV의 특집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스포츠계의 선한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다.

스포츠의 힘은 막강하다. 인종, 언어, 국가, 성별 등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운동선수의 영향력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전 피겨 세계챔피언 김연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연아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힌다. 포브스 코리아가 2009년부터 조사한 ‘파워 셀럽’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후 지금까지 10년째 상위권에 올라 있다. 10년 연속 선정된 스포츠 스타는 김연아가 유일하다. 김연아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훈련과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의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실력 좋고 인품까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모든 운동선수들의 바람일 정도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계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수와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선교단체 FCA의 영향력

CGNTV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스포츠 선교단체 ‘FCA’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FCA는 복음으로 무장된 코치를 양성하고, 스포츠를 통해 다음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단체다. 지난해 한국지부를 출범하고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프로야구 지난해 우승팀 SK 와이번스의 트레이 힐만 전 감독이

바로 FCA 출신이다.

FCA의 영향을 받은 스포츠 스타가 또 있다.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 선발투수 커쇼(LA 다저스)가 그 주인공이다. 커쇼는 최고의 야구선수이자 선교사다. 기회가 될 때마다 크리스천 선수들과 함께 간증을 나눈다. 커쇼의 비전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커쇼 챌린지’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팬들과 그 비전을 나누기도 한다. 그의 선행은 야구장을 뛰어 넘었다. 아프리카 잠비아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고, 비시존에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 등도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크리스천 선수들이다. 그들 대부분이 FCA 출신이다. FCA는 미국 43개주에서 800여 개의 캠프를 열고 있는데 2017년만 해도 청소년 약 6천명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FCA는 미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선교단체다.

FCA 콜린 클레어와 마크 보이어가 말하는 스포츠 선교 전략은 코치들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천명이 참여한다면 결코 성공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코치들을 통한 선교와 전도입니다.”

현재 FCA 출신 코치 수백 명이 미국 전역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고 운동하라”고 가르친다. 코치들을 통해 모인 아이들은 ‘허들’이라는 소그룹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다.

#### 스포츠 선교가 꼭 필요한 이유

이미 선교지 곳곳에서 스포츠를 통한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약과 갱이 판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빈민가에서는 축구공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축구가 청년들이 마약과 갱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꿈이 되었다.

사칼레 마판다노(18세)도 축구 덕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사칼레는 중학교까지 한 인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녔다. 그 학교 교장 김현주 선교사를 통해 이영표 선수와 연결됐고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이영표 선수에게 어떻게 축구선수가 됐는지 물었더니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칼레는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프로팀에서 선수로 뛰지 못하더라도 스포츠 매니지먼트 같은 스포츠와 관련 일을 할 거예요. 스포츠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싶거든요.”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서도 스포츠 선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후쿠오카에서는 아르헨티나 축구국가대표 출신 오르테가와 그의 아들이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축구팀 ‘에스페란자’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 교회와 함께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고 있다. 치바현에는 크리스천 농구팀이 있다. 그들은 ‘지저스킵’이라는 대회를 만들어

서 비크리스천을 초청하고 있다. 지저스킵 농구대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농구인도 있고, 크리스천들과 교제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일본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스포츠 선교가 매우 효율적이다. 요나이 히로아키 목사(교쿠분지침례교회 목사)는 스포츠 선교가 꼭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고등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교회가 스포츠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라운드 누비며 복음 전한다

태국의 깊은 산 속에서도 스포츠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강성민 선교사(임마누엘 축구선교회)가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1995년 시작한 강성민 선교사의 축구교실은 태국을 넘어 인도차이나반도 전역까지 퍼져 나갔다. 지금은 150여 개가 넘는 임마누엘 축구팀이 생겼다. 공개적으로 전도를 금지하고 있는 라오스에서도 크리스천이 늘고 있는데 스포츠 선교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강성민 선교사와 현지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를 열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운동장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복음이 라오스 교회의 성장 동력이다. 임마누엘 축구교실은 태국 축구국가대표 선수 아논 아몬라썩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크리스천 선수들과 코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비단 스포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을 시청하면서 21세기 선교가능성과 새로운 선교 방법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지난해 예수제자학교 이웃리치에서.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학교이다.

총 22주 동안 ‘하나님과 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십자가 위에서’, ‘악한 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주제로 진행된다.

예수제자학교(JDS)에서는 총 5개 반을 모집한다.

서빙고, 양재 주간반(화, 목 오전 10시~오후 3시, 여성), 서빙고, 양재, 수원 저녁반(목 오후 7시, 토 오후 2시, 남녀 모두)이다. 서빙고, 양재 주간반 2월 28일, 서빙고 저녁반 3월 9일, 양재, 수원 저녁반 3월 2일 개강한다. 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씩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소속 교회 교역자 확인 필)와 추천서(교역자, 교사 등이 직접 추천서 작성)양식을 홈페이지(www.onnuri.org)에

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 아이스쿨 4학점을 인정해 준다. 등록금은 60만 원.

문의: 02-3215-3625, 353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예수제자학교 입학 문의

서빙고 주간 010-6425-9912  
저녁 010-8201-8468  
양재 주간 010-9320-4738  
저녁 010-3773-2304  
수원 저녁 010-8968-0205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누리사랑부 산마루교회에 방한용품 전달

온누리교회 누리사랑부가 지난달 22일 방한용품(장갑 4쪽, 목도리 1개) 150세트를 산마루교회에 전달했다. 산마루교회에 전달된 방한용품은 누리사랑부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는 “온

누리교회 누리사랑부 성도들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누리사랑부 성도들의 사랑 덕분에 노숙인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성환 객원기자

# “진정한 감사를 배웠습니다”

## 영등포구로공동체 쪽방촌 ‘1다락방 1사역’

영등포구로공동체가 지난 12일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 ‘1다락방 1사역’을 실시했다.

이날 영등포구로공동체 성도들은 영등포 광야교회 성도들과 함께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어묵탕 200인분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강영희 총무(영등포구로공동체)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캠퍼스 일대일사역 리더십 워크숍

## 1월 26일 수원 온누리교회 비전홀

‘2019 캠퍼스 일대일사역 리더십 워크숍’이 1월 26일 오전 10시 수원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2019 캠퍼스 일대일사역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각 캠퍼스 일대일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사역의 목적과 필요성을 교육한다.

이번 리더십 워크숍은 신동기 장로(수원 온누리교회)의 기도, 이기훈 목사(일대일사역 담당)의 특강 ‘일대일 양육자반의 목적’, 위원 소개 및 사역 안내, 각 캠퍼스 일대일사역팀 소개, 중보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권찬송 기자

## 서빙고 1월 만남의 잔치

날짜: 1월 27일(주일) /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시온홀(B2)  
대상자: 2018년 11월 9일~2019년 1월 10일까지의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      |      |       |     |      |     |       |     |     |     |      |
|------|------|-------|-----|------|-----|-------|-----|-----|-----|------|
| 가정사역 | 고양은평 | 김포    | 동작  | 북누리  | 김현화 | 영등포구로 | 이수  | 장상훈 | 한강  | S브릿지 |
| 김지현  | 이재준  | 김한배   | 염문섭 | 안혜경  | 홍정희 | 김민정   | 유혜경 | 최낙승 | 강기원 | 고승찬  |
| 이경화  | 조성래  | 박해정   | 홍안명 |      |     | 김수환   |     |     | 장혜원 | 명혜진  |
|      |      | 천민영   |     | 서대문  | 성북  | 김현우   | 이춘  | 중종로 | 한정혜 | 박혜민  |
| 강서   | 관악금천 |       | 마포  | 이현정  | 김호진 | 최금선   | 김윤희 | 광명영 | 허준영 | 심창재  |
| 황인하  | 박성준  | 노원    | 강수경 |      | 채규만 |       | 모현주 | 김수현 |     | 우봉연  |
|      | 이명윤  | 김호훈   | 박사라 | 서빙고  | 안을현 | 용산    |     | 김영미 | OCC | 최다니엘 |
| 강춘   |      |       | 박상훈 | 안을현  |     | 송은우   | 일산  | 박민숙 | 선교은 |      |
| 송현지  | 광명   | 동대문중앙 | 이재민 | 신용산  | 고영애 | 오영민   | 강인경 | 차진주 | 하초자 |      |
| 이시혜  | 남청아  | 고선경   |     | 성동광진 | 김아람 |       | 이대성 |     |     |      |

##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
| 1133376 | 홍명숙 | 부천 사랑 | 1133392 | 박사희 | 양지 동누리    | 1133404 | 서영민 | 이촌    | 1133421 | 조세린      | 하늘    |
| 1133377 | 김민정 | 영등포구로 | 1133393 | 윤예슬 | 대전 Belief | 1133410 | 김봉주 | 이촌    | 1133422 | 주 실      | 하늘    |
| 1133378 | 한원구 | 부천 화평 | 1133394 | 김금순 | 송파        | 1133411 | 정종현 | W     | 1133423 | 정호준      | 허브    |
| 1133379 | 홍인영 | 동작    | 1133395 | 최민규 | 여호수아      | 1133412 | 김태영 | W     | 1133424 | 조정아      | 허브    |
| 1133380 | 이경성 | 도곡    | 1133396 | 공영은 | 여호수아      | 1133413 | 전나현 | 하늘    | 1133426 | 최정녀      | 일산    |
| 1133381 | 김창봉 | 용산    | 1133397 | 이효은 | 여호수아      | 1133414 | 민혜수 | 하늘    | 1133427 | 김은오      | 고양은평  |
| 1133386 | 표은정 | 푸른누리  | 1133398 | 공 신 | 여호수아      | 1133415 | 이유나 | 하늘    | 1133428 | 이윤하      | 하늘    |
| 1133387 | 김태훈 | 김포    | 1133399 | 김화연 | 여호수아      | 1133416 | 원재우 | 부천 화평 | 1133429 | TYO INNA | 온누리미션 |
| 1133388 | 박경민 | 경기A   | 1133400 | 박종원 | 여호수아      | 1133417 | 오거늘 | S브릿지  | 1133430 | 황인석      | 노원    |
| 1133389 | 박창홍 | 인천 사랑 | 1133401 | 노성준 | 대전 동누리    | 1133418 | 정다은 | 인천Web | 1133431 | 이유진      | 갈렙    |
| 1133390 | 정민숙 | 이수    | 1133402 | 박 경 | 성북        | 1133419 | 이민정 | 분당A   | 1133432 | 장하은      | 일산    |
| 1133391 | 김아람 | 이촌    | 1133403 | 최예원 | 성북        | 1133420 | 윤여동 | 하늘    |         |          |       |

# 양지 온누리교회 장로부부 조찬모임

##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한 방법과 전략 토론

양지 온누리교회 장로부부 조찬모임이 지난 12일 스크랜턴홀에서 열렸다. 장로부부 조찬모임은 양지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과 전략에 대

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태환 장로(양지 온누리교회)는 “양지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조찬모임을 통해 서로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 안산 다문화평생교육원 봉사자 모집

## 한국어 교실, 문화 교실, 차량 운행 등

안산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에 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영역은 한국어 교실, 문화 교실, 주방 섬김, 차량 운행, 재능기부 등이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안산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탁구, 요리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약 6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안산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을 수료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안산시로부터 ‘2019년 한국어교육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산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는 올해부터 다문화 관광통역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며 이주민들의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문의: 031-491-9650

작은 예수  
40일새벽기도회

##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 ◆ 1월 12일 토요일

## 성령과 회복

겔 47:1~12

이재훈 목사

구원은 회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매일 우리가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주는 능력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의 결심과 종교적인 생활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턱 아래에서 나오는 강물’은 성령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이 강물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강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줍니다. 이 강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흐릅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겸손한 사람을 향해 흐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에스겔을 강물로 인도한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1,000규빗마다 강물의 깊이를 잴습니다. 처음 그 강물은 성전 문턱에서 스며나온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000규빗마다 깊이를 잴 때 강물의 깊이

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차올라 해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물의 깊이는 삶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물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력에 의존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자원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생명을 살립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나와 세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 1월 14일 월요일

## 성령과 자유

고후 3:17, 눅 4:14~21

이재훈 목사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고후 3:17).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무엇으로부터(From)의 자유함과 무엇으로(To)의 자유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2천 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의 간극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롬 8:1~2).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

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 두 번째는 ‘거짓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이 땅에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 세 번째는 ‘상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상처는 죄와 거짓의 찌

꺼기입니다. 거짓에 속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남아있던 감정의 잔재들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상처와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 네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 다섯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거짓, 상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어도 다시 사는 삶입니다.

무엇으로(To)의 자유함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과 질서로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의 자유함 두 번째는 ‘진리로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의 자유함 세 번째는 ‘사랑으로의 자유’입니다(갈 5:13-15).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만큼 자유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 1월 15일 화요일

## 성령과 성전

고전 3:16, 6:19~20

이재훈 목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영광, 기쁨, 사랑을 나누고 그들로부터 영광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하기 원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만들도록 하신 대표적인 처소가 성막과 성전입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성막은 광야를 지날 때마다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철수할 수 있는 텐트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고 정착된 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차이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텐트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 물었고 나단 선지자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단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종교 심리가

공간을 신성화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이지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는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짓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자원,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자원,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손을 통해 직접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어지는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뤄집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이들에게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기에 하나님의 것이요, 처

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처소가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성전은 오직 성령의 능력,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짓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누리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1월 16일 수요일

성령과 직분

고후 3:5~8

이재훈 목사

사도 바울은 심각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 다.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큰 공격 중 하나는 ‘바울이 사도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일 수 없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가 처 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이방인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역사가 필요합 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율법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직 분자들입니다. 옛 언약에서 죄인 됨을 발견하 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 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

다.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옛 언약 에서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필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자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옛 언약 안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적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마음 에 가득한 특징이 자적지심입니다. 자적지심 은 스스로 자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고 자적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적이 어디서 왔는 지 고민을 깊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나

는 자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 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 신분, 경험, 혈통 등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완전 하게 낮아지게 하시려고 고난, 시험, 육체의 질병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 하는 모든 사역은 한 가지(고후 12:7)를 깨닫 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적지심으로 가득한 일 궂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전 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언 약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적지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 광을 추구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1월 17일 목요일

성령과 양심

롬 8:16, 롬 9:1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 나님 형상의 일부를 인간에게 나눠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기능을 인간 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 은 하나님 형상의 일부를 인간에게만 나눠주 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자유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 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 니다.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핵 심적인 기능이 ‘양심’입니다.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무 감각해졌습니다. 죄가 우리의 양심을 파괴했 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 하나님 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

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을 통해 양심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양심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선 한 양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악한 양심을 언제나 배려하고 품는 것 ’입니다. 로마교회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우 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 한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 지만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성 령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 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 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 려하여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고통과 근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과 근심은 자신의 문제와 먹 고사는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 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복음을 저버려 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열방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 다. 우리의 양심이 더욱 선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선한 양심 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1월 18일 금요일

성령과 예배

요 4:23~24, 빌 3:3

이재훈 목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 로 드러지는 예배입니다(요 4:23~24). 여기서 ‘영’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 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진실 되고 정직한 마 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빌 3:3)에서 ‘섬 기다’는 말은 ‘예배드리다’는 뜻입니다. 구약 의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빌립보교회에 사

도 바울은 참할례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 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 배드리고 있는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영적 예배에 대 한 두 가지 역설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 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 별하도록 하라”(롬 12:1~2).

첫째, ‘산 제물’입니다. 모든 제사는 죽은 제 물로 드러집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러졌는데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 가의 제물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안 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 해 산(living) 제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드 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가 곧 삶,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 한 예배를 드릴 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속에 이러한 변화와 열매가 나 타납니다.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던 것이 용서가 되고, 자유할 수 없던 것이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삶속에서 변화 와 분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참된 예배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딛으라

어떤 부인이 루터에게 와서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부인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인이 “네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하자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시군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큼의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을 실제로 역사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믿음이 필요하니까? 한 걸음 내딛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을지라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이나? 네가 지금 내게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한 번에 정상까지 점프하게 하시는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믿음의 발걸음을 찾고 계십니다.

## 베드로의 실패와 믿음의 성장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한 걸음, 하나님께 나오는 한 걸음, 배 밖으로 발을 내

딛는 한 걸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내딛을 수 있는 한 걸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위를 어느 정도 걸었는지 모르지만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의심이 있고, 믿는 자들의 의심은 예수님이 외의 것을 바라보는 의심입니다. 의심이란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선만 돌리면 금방 빠져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의심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렇게 쉽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군. 믿음이 없는 사람이군. 어떻게 저렇게 의심해서 물속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며 베드로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물 위를 걸어보거나 했니? 너희 중에 물 위를 걸어온 사람 나와 봐. 적어도 나는 한 걸음은 걸었어.”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체험한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잠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실패했지만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오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배 밖으로 한 걸음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세상의 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더 큰 실패인 줄 모르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걷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조롱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는 배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결국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용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것에 대하여 책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고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실패로 여기셨습니다. 저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는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레슨비를 비싸게 치렀지?”

실패했다는 책망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을 체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다가 불신의 위험까지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며 손을 잡아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실패는 언제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책망만 하지 않고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편한 교훈을 하실 때 손을 잡아 주십니다. 지적만 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잡고 해보십시오. 저 멀리서,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비열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실패는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걸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정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한 걸음만 걷는 체험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선교사님들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선교지로 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건강칼럼



이학일 집사  
(서초B공동체, 가정의학과 전문의)

겨울철은 온도와 습도가 낮아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처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겨울철에는 뇌와 심장을 보호해야 한다. 뇌졸중(중풍)과 심장질환이 잘 일어

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낮은 온도에 의한 혈관 수축, 혈압 상승과 더불어 혈액 점도 증가에 의한 혈전 발생으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유념해야 한다.

중풍의 전조증상(일시적 사비마비, 언어장애, 시야결손, 어지럼증, 감각저하 등)이 있다

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추운 겨울 대부분 주거지나 사무실 창문을 하루 종일 열지 않는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실내,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세균을 포함한 오염 물질 증가로 인해 감기를 비롯한 비염, 기관지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눈과 피부도 보호해야 한다. 밀폐된 실내 생활로 인해 눈이 자극되면서 메마르게 되고, 피부 역시 지나치게 건조하게 되면서 각종 피부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움츠러들기 쉬운 추운 겨울에는 무엇보다 면역력이 문제이다. 저하된 면역력은 감염을 포함한 여러 질병 이환과 각종 위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사항들을 잘 숙지하면 좋다.

첫째, 심혈관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저하시켜주는 꾸준한 운

동이 좋다. 온도가 올라가는 낮 시간에 운동하거나 실내 운동을 하면 좋다.

둘째, 겨울철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섭취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비타민 보충도 필수적이다.

셋째,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전신근육이 긴장되며, 소화불량 등 체한 증상이 잘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에 쌓아둔 하지 못한 말들을 큰소리로 외쳐라. 하나님 아버지께.

넷째, 성인 예방접종을 꼭 하기를 바란다. 독감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좋다.

다섯째,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조절을 해야

한다. 1~2시간마다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야 한다. 건조한 체내 및 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사우나와 빈번한 목욕은 피하는 게 좋다. 최소 하루 1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길 바란다.

여섯째, 바이러스 감염은 손이 주범이다. 손을 철저히 씻고, 손을 입이나 코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과로는 우리 몸의 항상성과 생활 패턴의 규칙성을 저해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하고, 기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여덟째, 진로 일선에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마음의 평강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우울증 역시 겨울철에 증가한다. 근심이 빠도 마르게 한다는 잠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잘 알 것이다. 추운 겨울 성령님의 따뜻한 바람이 모두에게 불어오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덜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나지원 팀장(010-3489-2080)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온누리 남성성교향찬단 단원모집

시간: 매주 화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신준환 성가사(010-5304-7039)

홈페이지 : <http://www.ommc.kr>

기독교학교 교직원 모집

샘물중고등학교: 기획 및 인사, 수학, 사회

(범과정치)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체육(파트)

다샘물학교: 체육(파트)

마감: 1월 28일까지(사회 31일까지)

[www.smca.or.kr](http://www.smca.or.kr) 참조

사단법인 최경주 재단 사무국 직원

채용

분야: 경영지원팀 사원

업무: 회계, 총무, 인사 외

기간: 1월 25일 오후 3시까지

문의: 02-556-102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4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CGNTV / 본격러브액션드라마

# 고고송

본방송 (2부작)

1월 25일(금), 26일(토)

밤 9시 10분

재방송 (2부 연속방송)

2월 3일(주일)

밤 11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고전 13:8)

사랑에 있어선 'GO!'를 외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이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출연: 윤은혜 지일주 윤유선 성기윤 임동진 문숙 강민휘 백지윤 장광 이미은 강래연 유병수 전성애 주부진 최종률 정대홍 정선일 김영선

## 2019 CGNTV 시청자 설문조사

CGNTV가 2019년을 맞아 시청자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설문참여: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내 설문조사 페이지 방문

설문기간: 1월 15일 ~ 1월 24일 (\*1월~4월까지 매월 15일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CGNTV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웹페이지: www.cgntv.net

국세청: www.hometax.go.kr

전화문의: 후원관리팀 02-796-2243

\*CGNTV기부금내역 → (재)온누리선교재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